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쟁점과 과제 -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권성철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Issues and Challenges on the Adaptation of Korean Society for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Community Settlement system

Sung-Chul Kwon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Doctor completion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탈북여성, 한국사회적응, 지역사회적응제도, 민관협력거버넌스, 통합적인지원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focusing on the Community settlement system of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 - Korean relations starting from the recent summit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alytical methods were conducted using literature and previous research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necessi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of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and experience of defecting,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stable settlement support,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public -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structure The need for a tailored social adaptation program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a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mportan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ctual system through studying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unification era. In future research, the support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udies to identify the factors for role formation will be needed.

Key Words :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Korean society adaptation, Community Settlement system, Public-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Integrated Support System.

* Corresponding Author : Sung-Chul Kwon(hoof40@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6, 2018

Revised October 5,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신분변화와 사회적 지위 등의 위상이 현격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의 급격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출로 인한 저출산,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 남녀차별이 당연시되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다[1]. 이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 결혼시기가 늦어지거나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이주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학계와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에 따른 배제, 차별, 불인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부적응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이슈로 등장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현상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198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었으며 [2], 그에 따르는 문화와 노동문제 등의 이유로 각국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식과 사회적응의 변화 및 사회통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인구의 점차적인 증가추이는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문화적측면의 특수성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단절된 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 즉 중국과 몽골, 캄보디아 등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수가 통일부 추산으로 2016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다[3].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매해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2009년에는 한해에 2,914명, 2012년에는 1,500명 선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276명으로 다소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총 입국자 수는 30,004명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민 중 매년 한국으로 탈북 하는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에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12%정도로 미미했지만, 2006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75%, 2015년에는 80%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족을 동반한 탈북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여성가장으로서 가족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주목했던 점은 탈북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에 있다고 본다. 이는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정책의 한계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과 차별, 그리고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탈북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에 대한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현저히 낮은 직종 혹은 유흥업소 등의 저임금 노동현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상 등 고용형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4]. 그리고 다행히 취업했다 해도 탈북여성의 49.6%[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 불안에 있으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극단적인 경우 일부는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재이주를 하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실정인것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탈북주민에 대한 연구들 중 여성의 관점에 기반 하여 진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06년 이후로는 거의 연구가 없었다고 보인다.

간혹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한국사회에의 적응 실태조사[6],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의 연구에 주로 집중되어 왔었고[7], 탈북여성의 취업지원보다는 정착에 대한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 등의 다소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이들의 최초 적응단계 혹은 그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탈북여성의 취업 및 자립지원 등의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의 최초 적응단계 혹은 그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탈북여성의 취업 및 자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현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논란의 시기에 탈북여성의 적응실태와 지역사회 정착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탈북여성의 한국 적응실태, 그리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해 문헌고찰, 실태 현황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안과 이론적 논쟁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주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관련 단행서적, 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한 문헌분석에 의하며 선행연구논문과 통일부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정착제도 및 취업,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탈북여성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은 사전적의미로 보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기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개념으로는 '북한에 주소, 직계,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즉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지칭하는 말로 '탈북자', '난민', '자유이민자' 등의 용어로 사용되거나 불려지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여성 탈북자의 수가 급격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여성 탈북자의 한국 사회정착 및 적응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북여성의 지위는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난민의 성격을 가지며 정치, 경제, 인도적 유형의 난민으로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띤다.

1990년 이후 세계체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치 불안과 반발,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위기의식 등으로 정치·사회·경제의 와해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난민의 길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탈북여성은 북한을 이탈한 이주민으로서 국내외로부터 보호·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난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여성을 사회 약자로서, 여성 인권의 난민으로서의 인도주의, 동포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 정착·적응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8].

Table 1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통계자료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을 토대로 탈북주민의 입국자 추이는 통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후를 기점으로 탈북주민의 입국자수가 지속적으로 증

Table 1.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Entry level at the end of June 2017)

Year division	98	01	03	05	07	11	13	15	17.6	Sum
Man	831	565	474	424	573	795	369	251	86	8,891
Female	116	478	811	960	1,981	1,911	1,145	1,024	507	21,914
Sum	947	1,043	1,285	1,384	2,554	2,706	1,514	1,275	593	20,805
Female ratio	12%	46%	63%	69%	78%	70%	76%	80%	85%	71%

Table 2. Status of North Korean Academic Ability(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Division	A pre-schooler	kindergarten	Middle School (High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and above	No education	Other (statue of Buddha, etc.)	Sum
Man	405	136	744	5,268	736	978	351	25	8,643
Female	394	185	1,234	15,286	2,047	1,066	479	130	20,821
Sum	799	321	1,978	20,554	2,783	2,044	830	155	29,464

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자수의 추이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로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에는 입국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그중 1,024명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남성을 현격하게 추월하여 현재 전체 입국자 비율로 보면 탈북여성 비율이 7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다.

Table 2는 재북 학력별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기준을 보면, 북한에서의 학력 중 중학교 학력은 20,554명으로 그중 여성이 5,286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은 2,783명으로 그중 여성이 2,047명으로 3배정도의 수치로 북한에서도 여성의 학력인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탈북자 중 북한에서의 학력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중학교이상 학력에서 월등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탈북주민의 상당한 인원이 북한 지도층에 있던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탈북여성의 경제활동현황

Table 3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현황에 의하면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 고용율은 50.6%로 일반 여성국민의 경제활동을 52.1%, 고용율 50.4%와 비슷하나 실업율은 5%로 일반국민 여성의 3.2%보다 높다. 그러나 월 평균 임금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154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136만원으로 낮았다.

3.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사전적의미의 개념은 ‘개체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적 조건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을 적응 혹은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9]. 즉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현상을 말한다[10].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 또한 적응적 개념에서 보면,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관습이나 태도를 배우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Table 3.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for defectors(2015 Entry criteria)

Division	'07	'08	'09	'10	'11	'12	'13	'14	'15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Employment rate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Unemployment rate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Table 4. Status of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Division	'07	'08	'09	'13	'14	'15
Livelihood benefit rate	63.5	54.8	54.9	35	32.3	25.3
Rate of omission in the primary, secondary, and secondary schools	7.1	10.8	6.1	3.4	2.5	2.2

Table 5. Status by job in North Korea(~'Entry level at the end of September 2016)

Division	Executive	Soldier	Worker	Unemployed	Service Fiel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rofession	Non-target (children, etc.)	Etc	Sum
Man	372	643	3,737	3,120	70	74	210	416	1	8,643
Female	114	88	7,468	11,017	1,061	182	454	435	2	20,821
Sum	486	731	11,205	14,137	1,131	256	664	851	3	29,464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응체제에서 살아온 당사자들은 더욱 한국 사회적응이 두렵고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북한에서 쌓아온 학력, 생활 등을 모두 잊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은 2016년 통계연보자료[11,12]에 의하면 남성보다 대학진학률이 6.7% 높았고 초등교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이며 공무원 합격률은 총 52.6%를 차지하는 등의 결과를 볼 때, 젠더 적 관점의 시각에서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점차 신장되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러한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월등한 여성의 숫자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정착에서 정치, 사회, 행정, 복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탈북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4. 탈북여성의 정착지원정책

4.1 탈북여성의 지역사회 정착현황

Table 4는 탈북주민의 정착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을 보면 2015년 남성은 15.1%인데 비해 여성은 29.3%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이러한 현상은 입국과정과 탈북여성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입국과정에서 제3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 또는 조선족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형성, 가족의 해체 등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이 과정 속에서 심리, 건강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선 지원받고 싶은 항목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경제지원' 36.9%, '취업지원' 34.6%, '의료지원' 34.5%, '교육지원(본인이나 자녀)' 33.5%인데 비해 남성은 '취업지원' 36.2%, '경제지원' 34.6%, '의료지원' 27.9%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고 이들이 입국하기까지 제3국에 머무는 기간은 '9년 이상'이 18.3%로 남성 8.9%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3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가 여성은 26.5%이고 남성은 52.1%로 2배 정도 차이가 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5].

Table 5는 재북 직업별 분류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기준을 보면, 북한에서의 직업 중 무직 부양 14,137명으로 그중 여성이 11,017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는 11,205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있으며, 그중 여성이 7,468명으로 2배가 좀 넘는 수치로 북한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수지만 군인이 731명, 전문직이 664명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직인 경우에도 이 중 454명의 과반이 넘는 수의 여성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 조차 여성이 월등한 수로 가사나 노동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탈북여성의 취업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보호신청 및 보호의 결정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보호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이중 취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착지원 정책으로 시설보호 단계의 과정에서 지원된다.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한 이후 입국 후에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 총 392시간 동안 기수별로 사회적응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정서안정, 건강증진과정(50시간), 진로지도, 직업탐색과정(144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과정(150시간), 초기정착지원과정(48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에서는 11개 직종을 1일 1개 직종씩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15년 4월부터 학습자 주도형·개방형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취업능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둘학교 청소년 반 입학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운영하고 있다[16].

이러한 초기정착지원 정책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개개인별 맞춤형 욕구에 맞춰 한국사회적응강화를 위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통일부는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하여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을 개편하였다. 프로그램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개인별 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이다.

둘째, 장기인생설계 등 자립·자활 역량배양 지원이다.

셋째, 국민·선배 탈북민과 교류 등 사회통합형 교육의 점진적인 전환이다.

넷째,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 내실화 등이다[17].

하나원 입소과정에서 교육이 끝난 후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거주지 배정 및 각종 사회복지, 경제적 지원단계가 진행된다. 이를 거주지 보호지원 제도라 하는데 이 제도에서는 해당 시도의 거주지 전입직위에 정착, 주거지원을 지원하고, 거점형 지역적응센터 등에서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정착과 관련된 교육지원이 행해진다. 예를 들면, 정착도우미 제도를 두어 남한 주민을 멘토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적응을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혹은 복지기관에서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에는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 고용지원, 자산형성제도, 취업 등을 지원하고, 사회보장 면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연금특례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해 편입학, 학비지원 상담지원 등을 행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후에는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한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5. 탈북여성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 등을 수립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착지원법」은 총 34조로 규정되어 있고 이 법의 목적은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이북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정착 및 취업을 비롯한 생활에서 빠르게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그중 제2조의 규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에 의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제4조 규정에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호대상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 규정에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착지원의 세부 내용으로는 생활보호(제26조), 국민연금특례(제26조의2), 생업지원(제26조의3), 자금의 대여(제26조의4), 교육지원(제24조), 의료급여(제25조), 주거지원(제20조), 정착지(제21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제21조의2), 거주지보호(제22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이나 외국에서의 학력이나 자격 인정(제13조-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보호신청, 결정, 결정기준 등에 의해 규정하고(제7조-제9조), 정착지원시설 설치, 보호(제10조-제12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제16조), 영농정착지원(제17조의3), 국가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제18조), 취업보호제한(제17조-제18조)과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들의 고용을 위해 지원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2).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가치관 및 문화적 차이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취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재이주를 하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6.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Table 6은 선행연구를 정리한 설명이다.

첫째, 한국 사회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기간, 건강, 대인관계, 가족관계, 경제생활능력 등이 고려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성별, 연령의 경우 이들의 한국 사회적응과의 영향 관계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다만 또 다른 연구에서 성별에 관한 젠더 적 관점에서 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에서는 이미 북한사회에서부터 선행적 경험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 다른 차별적인

삶의 방향과 직업, 주어진 기회, 의무와 책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택으로 성별에 대한 다른 북한의 교육은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차별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

둘째,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는 정신건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20]. 이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지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정신적인 PDS, 강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21].

셋째, 가족관계에 있어서 탈북여성은 한국사회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으로 부모, 자녀양육문제, 부부관계의 갈등, 직업훈련, 직장생활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또 다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가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부부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

다[22].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응집력은 한국 거주기간의 변수요인이 다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는 거주기간과 가족관계의 결속력에 대한 관계가 정비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경제적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과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취업유무, 취업지원, 직업교육형태 및 영역, 취업조건 및 형태, 취업유지기간, 임금수준, 취업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적응과 경제적 요인이 관련된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취업교육, 취업지원에 있어서 심리, 정서적 고통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효과적인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취업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8].

그리고 북한에서 입국당시 고위직 혹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입국 후 혼인을 한 경우 일 때 취업률이 높았고,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23].

또 다른 연구에서 한국에서 학업을 포함한 정규교육, 취업교육 등을 받은 경우도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24].

Table 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Women

Prior research topic classification	Researcher	Results
Study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perspective)	Lee Keum-Soon(2003) Ahn Jae-hee(2003)	Gender, age, and the result of maladjustment by differentiation
Correlation study with health status	Cho Young-A(2005) Ahn Jae-hee(1998) Ahn Jae-hee(2003) Lee Young-Seon(2011)	The result of maladjustment due to mental health problems caused by post-traumatic stress
A Study on Family Conflict (Marriage)	Lee Keum-Soon(2005) Lee Ki-young(2002)	The result of the maladjustment by the conflict (marriage, children) coming from the family relation
A Study on Economic Factors (Employment)	Lee Keum-Soon(2003) Ahn Hye-Young(2002) Son Moon-Kyung (2002) PARK Jung-ran(2006) Kim In-Sook(2008) Cluver L, Bray R, & Dawe A(2008) Kim Gi-Chang(2015) Jang Mung-sun(2010) SongChang-Yong(2011)	Economic factors such as dissatisfaction with wages and conditions coming from employment and deriving a result from maladjustment due to unstable settlement from prejudice and prejudice
A Study on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Chin Mee-Jung(2008)	Derivation of Results on the Cause Identification of Women's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Jeon Yeon-Suk(2012) Jang Mung-sun(2010)	Result of maladjustment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이중 탈북여성이 남성에 비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 높은 취업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 등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등 고용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4].

또 다른 연구들에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의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여성이 한국으로 건너와 유흥업소 및 성매매에 들어가게 되는 근본원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저연령, 저학력,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건강상태, 자국 또는 이주과정에서의 성폭력 경험[25]등이 이주과정에서의 인신매매 경험, 자립의지 혹은 자활효능감[26]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선행연구의 추이는 탈북여성의 입국자수가 현격히 증가하는 현상에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재하게 되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국적을 가진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탈북여성의 관심과 지원이 다소 약화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생활 적응과정에서는 실제로 다문화주민의 증가와 사회정착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취업현장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한국 사회정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탈북여성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와 한국사회주민들과의 편견과 선입견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사회통합에 방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27].

또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및 직장생활 경험에 있어서 탈북여성은 한 번 이상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활동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합격되거나, 직장생활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는' 등의 다양한 편견과 무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있었다[28].

다행히 취업을 했다 해도 탈북여성의 49.6%[5]가 비정규직 형태로 취업 불안 층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응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있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적응과정에서 남성과 여성특성을 비교한 연구로 북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집합주의, 가족주의, 물질주의 등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을 더 높게 가지고 있으나, 탈북이후에는 한국사회에 온 이후에는 가족주의 점수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고 밝혔다[29].

또 다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문화적 적응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였다[30].

둘째, 문화적 적응에 대한 부분의 연구들로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시 결혼한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상실감 극복의 한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경제 및 학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로 2008년 이전의 연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탈북과정과 끔찍한 경험들의 후유증으로 겪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탈북여성의 경우 탈북과정과 한국 사회적응과정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3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절박함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의 경험들은 심각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욱 한국 사회적응을 위협하는 것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29]. 이러한 탈북과정의 외상적 상처들은 한국 적응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외상적 상처는 심각한 정신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넷째, 한국 사회적응의 요인으로 탈북여성의 가족형성 및 가장으로서 부양의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이 여성가정인 경우 이미 제3국에서의 이중 결혼으로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여성은 젠더적 관점에서 사회의 구성단위 가족을 다시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한국 사회적응과 자활 및 자립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다섯째, 법적근거에 의거한 제도 및 정책제언관련 선행연구로 전연숙[31]은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정착 및 적응을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근거의 실태연구를 통해 탈북여성이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 정책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법으로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적 관점의 성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인 여성의 특성들 즉 육아, 출산, 가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반영한 법적, 정책적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장명선외[27]는 선행연구에서 정착지원법에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지원의 필요성과 정착지원법에 성인지 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 북한이탈주민정책에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현 등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구축체계를 만들자는 현실적인 연구제언을 하고 있다.

7.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과제

본 연구에서 탈북여성의 비율이 71%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2%, 30대가 26.5%, 40대가 22.4%로 20-40대가 거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에 비추어 볼 때 탈북여성들은 경제생활 등 자립자활에서도 이들의 특징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정착지원법」의 내용이나 지원정책에 있어서 여성들의 삶의 경험이나 특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7.1 탈북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조항의 쟁점과 과제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조항에 젠더적 관점에서 성별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의 경우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형성, 가족의 해체 등 가족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치스럽고 끔찍한 경험들의 과정 속에서 심리, 건강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때문에 여성들이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우선 지원받기를 원하는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수치로 보면 의료지원, 교육(자녀)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남성에 비해 가족체계유지 및 자녀교육 지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이러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영한다면 정착지원법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적 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방향에서 탈북여성의 정책지원에서 그동안의 탈북여성의 삶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탈북여성의 경우 강도 높은 심리 외상을 경험하고 극심한 탈북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우울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의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인 생활보호, 의료지원이나 심리 정서안정 지원도 앞에서 보았듯이 탈북과정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여성에 대한 세부과제 발굴지원이 필요하다[3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방향에서 북한이탈여성주민을 고려하여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책임하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생활보호, 의료지원, 심리정서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3].

7.2 탈북여성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쟁점과 과제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에 있어 여성 및 가족 단위 중심의 입국으로 인해 젠더적 관점의 가족프로그램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부양 및 양육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탈북여성은 한국생활에서 비롯되는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20].

김기창[28]은 선행연구에서 가족생활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취업 및 직업의 자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인으로 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을 통한 한 부모가족 통합 지원, 언어, 문화 및 사회화적응을 위한 교육환경, 특히 탈북여성의 배우자 다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한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의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 양육, 부부관계 등 젠더적 관점의 가족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착도우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회적응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후견인으로서의 한국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초기정착과정에서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3 탈북여성의 민관 통합적지원체계구축의 쟁점과 과제

김미령[33]은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여성들을 비교할 때 느끼는 한국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비교한 결과 앞에서도 언급한 연구결과와 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우울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김희경[34]은 여성이 남성보다 외상 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신체화, 대인 예민 수준이 높았고, 여성은 살고 있는 거주상태와 무관하게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이러한 적응에 대한 어려움들은 입국초기 혼란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국 초기부터 자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응지원과정의 직장유지기간 중에도 자립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살기 좋은 생태환경의 조성과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민관 협력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거점별 하나지원센터는 그 지역에서 탈북여성이 주민으로서 지역의 삶속에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취업에 관련된 체험교육이나 지역사회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31].

이와 같은 탈북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활,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조적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협의체계 구조를 갖춘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고,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유연한 조직이며, 민간차원의 효율성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능적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기구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여성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탈북여성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1개소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7.4 탈북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기존의 탈북여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은 정착지원 중심으로 맞추어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숙련습득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전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35].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 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지역사회 조기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개인별로 다른 정서와 성향, 진로에 대한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정서적 접근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취업기능훈련으로 보다 개인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안정된 직업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기반을 통해 한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사이에 사회통합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8. 결론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었고 이중 여성비율이 71%이며 매년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부적응하는 요인들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탈북여성들의 지위와 삶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법」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진행해왔다. 이러한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법률과 정책은 여성탈북주민의 개별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탈북여성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기준에서 주요한 젠더과정을 반영한해서 정착지원법 제5조의 보호기준에 성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세대구성,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재산, 자립, 자활능력 뿐만 아니라 성별도 고려한 젠더 적 관점에서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다면 법적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효과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탈북여성의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제도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취업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인 편견

및 무시를 경험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여성의 취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즉 자아효능감 향상프로그램, 사회문화 및 소통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한국주민과 탈북여성간의 인식개선프로그램,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남한 취업 및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찰하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취업준비과정에서 관련 업무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실무기회의 제공을 통해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36].

셋째, 탈북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여성의 입국과정에 대한 나쁜 경험들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 등의 정서, 심리적인 문제와 한국 사회적응에서 겪게 되는 취업 및 거주와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민간과 공적기관이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고,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유연한 조직이며, 민간차원의 효율성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각 기능적 전문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등 지역별,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있어서 초기 탈북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북경로와 동기는 한국 사회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경로에서 중국을 경유한 탈북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를 통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업경험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후유증을 겪게 되어 한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경로에 따른 탈북여성의

경험이나 경로에 따라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탈북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취업지원정책의 높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탈북여성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 정서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지원 및 보호망의 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탈북여성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당사자 중심의 질적 연구,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성탈북주민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의 탈북여성 지원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O. G. Kim & E. S. Yoon. (2018). An autoethnography of a nursery principal in her fifties growing up with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Erik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98-197.
- [2] O. S. Cho & H. S. Bang. (2018).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73-180.
- [3]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Name of Web Site. www.unikorea.go.kr
- [4] J. R. Park. (2006). Study on Female New Residence Seekers'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 A contextual approach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EwhaWomans University.
- [5] C. Y. Song. (2011). Current Situ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 [6] *Found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2011, "Basic analysis of the life situation of defectors in North Korea."
- [7] C. G. kang. (2010). North Korean Refugee Supporting Policy Based on Barrier Facto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2(1), 261-290.
- [8] S. P. Lee & H. J. Kouh. (2014). Building of Group Program for Female Saeteomin's Early Settlement,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2(1), 329.
- [9] doopedia. Name of Web Site. http://www.doopedia.co.kr
- [10] I. S. Kim & K. M. Cho. (2017). A Fusion Program of Tea Ceremony and Applications to Reduce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45-450.
- [11] Ministry of Education. (2016).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Name of Web Site. www.moe.go.kr
- [12]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Statistical Yearbook of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on, Name of Web Site. www.mois.go.kr
- [13] H. S. Ha. (2016). Evaluation of the Project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2.
- [14] Korea Hana Foundation. (2015).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ctivity survey*, 122-124.
- [15] Korea Hana Foundation. (2015).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ctivity survey*, 94-95.
- [16] S. Y. Jang. (2015).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Legal System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Unification and Law*, 24, 69-75.
- [17] Ministry of Unification. (2017). Name of Web Site. www.unikorea.go.kr
- [18] K. S. Lee. (2003).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423.
- [19] J. H. Ahn, & M. S. Min. (2003). An Analysis of Women's Education Experience in the North Korea Education System, *The Women's Studies*, 65, 211-244.
- [20] Y. A. Cho & W. T. Jeun & Yu J. Ja & J. s. Um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8-469.
- [21] I. J. Yoon. (2000). The actual condition and analysis of defectors' problem, *Unification argument*, 18, 3-30.
- [22] K. Y. Lee & T. W. Eom. (2002). A Study on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helplessness depression,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1, 217-234.
- [23] H. Y. Ahn. (2002). The Displace people from the North Korea = The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and developing of support system for the Displaced people, *The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37, 374-379.
- [24] M. K. Son. (2002).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 Adaptation in South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79.
- [25] Cluver L, Bray R, & Dawe. (2007). A, "Monitoring the worst form of child labour, trafficking and child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In: Dawe A, Bray R Van der Merwe A(eds), *Monitoring Child Well-Being: A south african Rights-Based Approach*, Cape Town: HSRC Press, 247-268.
- [26] I. S. Kim. (2008). An Exploration on the Reconstruction of "Self-Sufficiency" Concept: Focused on the Self-Sufficiency of the Prostitut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2, 93-199.
- [27] M. S. Jang & A. R. Lee. (2010). A Study on Building Economic Independence among Women Refugees of North Korea through Employment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2(2).
- [28] G. C. Kim. (2015). A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s to Local Community-Focusing on North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9(1), 312.
- [29] Y. S. Lee, H. W. Ku & I. Y. Han. (2011). Systematic Reviews of North Korean Refugees: Women's distinguishable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2), 149-183.
- [30] M. J. Chin. (2008). Gender Differences in Value Orientations, Levels of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1).
- [31] Y. S. Jeon. (2012). Employment Promotion and Barri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 Women's Research Institute*, 10(2), 107-128.
- [32] M. J. Lee, H. I. Chang & J. Y. Jun. (2016).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 A Mediated Moderation Mode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1(3), 460.
- [33] M. R. Kim. (2005). The Effect of the Perceived Adjustment Stress and the Coping Resources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Comparison between Men and Wo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
- [34] H. K. Kim. (2010). The relations between defense mechanism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5, 155.
- [35] S. J. Park.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ociety of Refugees in Korea, *Monthly Labor Review*, 10, 107.
- [36] Y. J. Kim. (2017). Convergent Research on Balancing Experience of Work and Child car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85-395.
- [37] S. B. Lee & J. H. Kim. (2012).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men's Human Rights on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Korean Balanced Development Studies*, 3(2).

권 성 철(Kwon, Sung Chul)

[정회원]



- 2000년 8월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2월 : 가톨릭대학교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탈북사업, 학교복지, 지역복지, 노인복지
· E-Mail : hoof40@hanmail.net